



Baptism of Christ
1304-06. Fresco,
Cappella Scrovegni
Padua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 10001

Phone: 212.736.8500 (EXT 355, 384)

347.834.5784 (사무실 휴무 월, 목)

Website: www.stfrancisk.org

칭년 website: facebook.com/gropus/yagfyny

Email: stfrancisk.org@gmail.com

주임신부: Fr. Andrew Reitz, O.F.M.

지도신부: 김성인 미카엘(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michaelkofm@gmail.com

지도수녀: 김도경 첼레스틴(투스정 포교베네딕도회 서울수녀원) ohanleosb@gmail.com

사목회장: 이서원 마리로사 201.787.0879

한국학교: stfrancisks@gmail.com

[제1독서] 이사 42,1-4.6-7

[화답송] 시편 29(28),1ㄱ과 2.3ㄱ과 4.3ㄴ과 9ㄷ-10(◎ 11ㄴ)



(후렴) 주님이 당신 백성에 - 게 강복하여 평화를 - 주시리라.

- 하느님의 아들들아, 주님께 드러라. 그 이름의 영광 주님께 드러라.
거룩한 차림으로 주님께 경배하여라. ◎
- 주님의 소리 물 위에 머무네. 주님이 넓은 물 위에 계시네.
주님의 소리는 힘차고, 주님의 소리는 장엄도 하네. ◎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

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밀줄 부분에서 모두 고개를 깊이 숙인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가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

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

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제2독서] 사도 10,34-38

[복음환호송] 마르 9,7 참조

◎ 알렐루야.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복음] 마태 3,13-17

[성가안내]

- 입당성가 [481] 요르단강에서
- 봉헌성가 [1] 나는 믿나이다 3절부터
- 성체성가 [498] 예수여 기리리다
- 파견성가 [479] 기쁜 날

미사 봉헌

● 영미사

이영우, 이태묘
김영복 아네스
김창진
김영우 요셉, 강건대 마리아 부부
강주봉, 김경희
엄창석요한, 정인봉, 박은남
조화장 안나
아 마리아

● 백미사

모든 연령회 회원들
이지연 안나레지나
이영애 레지나
학생 복사단
박송남 프란치스코, 이해순 아네스
김주영, 제시카, 슬기 가족
김종희 베로니카 가족
조기태, 주현수와 모든 가족
김경련 울린다
성모회
이경자 벨라뎃다
김애희 테클라
임금중 마가렛
박기목 알버트
박명석 제노베파
전마지 마가렛
이지훈 아네스

봉헌

이상홍 스테파노
이원경 모니카
김영숙 카타리나
김지영 유스티나
강혜숙 바올라
엄청자 요셉피나
이 수산나
이정은 까리타스

연령회

이영애, 이지훈
이지연, 이지훈
박신희 리나
박기목, 박아영
익명
익명
익명
김승범 프란치스코
민덕미 안젤라
최병남 미카엘라
안영옥 분다
익명
익명
이민영 유스티나
전마지 마가렛
이지연 안나레지나

주일	해설	1독서	2독서	영어복음	보편지향기도	봉헌	복사	성찬봉사
1월 12일	권순재 요한레오나르도	안상민 그레고리오	오진화 정혜엘리사벳	임유진 라자로	김민희 세레나	민덕미 양미숙	오윤서 황예슬	김성중 이규완 이경자(울) 김효진 이은경 신윤길 신애송 윤숙자
1월 19일	이영노 울리안나	김희진 마르가리타	김보희 클라라	황세유 루카스	정유진 콘술시아	이서원 강혜숙	신정목 오석진	신윤길 신애송 신정목 이지훈 이지연 김승애 이영근 김종선

주일미사	오전 09:15 윗 성당
청년미사	두 번째 토요일 오후 6:00 아래 성당
고해성사	미사 30분 전 아래성당 고해소
혼인성사	신부님께 직접 문의
유아세례	사무실 : 347-834-5784

[복음 묵상]

“새로운 요르단 강, 하느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요르단 강에서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다. 구약성경에서 '요르단 강'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광야를 거쳐 하느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땅으로 넘어가기 위해 건넌 곳이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오르시자 하늘이 열리고 소리가 들려온다. 구약성경에도 여러 차례 소개되는 “사랑하는 아들, 마음에 드는 아들”이라는 표현은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이'를 의미한다.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호칭이지만 이 '아들'은 구약의 아브라함처럼, 하느님의 뜻에 자신의 땅과 아들까지도 내어놓아야 하는 소명을 지닌 이다.

하느님의 소명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이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세례축일의 핵심이다. 마태오 복음사가는 화려한 부르심의 장면에 이어 '광야의 유혹'을 소개한다. 이는 부르심과 응답에 있어서 여러 가지 유혹, 그리고 고난이 있기에 '하느님의 사랑받는 아들'로서의 소명에 응답하는 삶이 십자가의 죽음까지 계속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 하느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 이는 단순히 창조주와 창조물의 관계가 아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의미한다.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 사는 자녀의 삶은 영광과 축복만이 아니라 관계에 머물지 못하게 하는 유혹과 고난도 포함한다. 결국 영광과 축복만이 자녀의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데 있어서 마주하는 유혹과 고난 역시 자녀의 것임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유혹과 고난은 신앙생활의 큰 장애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늘 새로운 넘어감의 장소인 '요르단 강'이 필요하다. 받는 삶에서 주는 삶으로, 미워하고 원망하는 삶에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곳, 그 요르단 강은 바로 하느님의 말씀이다.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 그런 변화를 체험해보자.

그리운. miss KOREA
10W 32nd Street, 1,2,3 FL, NY
212-594-4963

원조
23W 32nd Street, New York
212-695-5815

더큰집
32W. 32nd Street, New York
212-216-9487

HELL'S CHICKEN
641 10TH AVE (45/46 ST), NY
212-757-1120

Shin & Associates, P.C. 신중식 변호사 사무실
백승민 변호사
Sung-Min Baik, ESQ.
212-594-4663
16W. 32nd Street, Suite 502 New York
www.lawyer-shin.com
이민법, 상법, 교통사고, 소송

이민전문 (아오스당)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ATTORNEY AT LAW
STEVEN LOUROS
Expert in personal injuries
212-481-5275 (New York)
718-423-0448 (Flushing)
1261 Broadway suite 1100 New York
slourosesq@yahoo.com

Financial Service Professional
노세웅
Licensed Agent-한국어 서비스
생명보험, 학자금 마련,
건강보험, 은퇴자금, Annuity, Long Term Care
201-667-7338

COMPASS
Helena Park
Real Estate Broker
helena.park@compass.com
212-289-8899
90 Fifth Avenue, New York, NY 10011

Nest Seekers INTERNATIONAL
크리샤 박
krishap@nestseekers.com
(917) 370-0394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 W 58th St WINE & LIQUOR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11am-11pm /Sun:12pm-9pm

마리아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646-808-7322

인쇄·책출판
당일 인쇄가능
EDDM, Mailing Service / Yelp, Email Marketing
T. 212. 971. 0212 / 268. 2776
대환인쇄 208 W. 29TH ST., # 203, NY, NY 10001

뉴욕 맨하탄 NYC INTEGRATIVE ACUPUNCTURE
마음힐리언스한방병원
290 MADISON AVE FL6 NY,
NY10017 (b/t 40&41st)
212.203.0072 (문자가능)
예약/문의 카톡ID: nycacu

항공 및 관광 전문
올림피아여행사
박로사
1270 Broadway(32,33가 사이) #603
www.olympiatourusa.com
☎ 212-695-6699

광고주를 찾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성당에 처음 방문하신 분,
전입하신 분, 환영합니다!
: 다미아노 홀(성당 밖 좌측 20m)

[오늘의 정기모임]

- **연령회** : 11시, 아래성당
고 김영복 아녜스님을 위해 연도합니다.
- **성모회** : 11시, 교육관 4호실
- **요셉회** : 11시, 2층 컨퍼런스 룸

울뜨레야 신년교례회-데 꼴로레스!

- 일시 : 오늘 4pm(미사와 만찬)
- 장소 : 마돈나 성당
(340 Main St. Fort Lee, NJ)
- 티켓 : 20불 • 문의 : 울뜨레야 간사
동북부 울뜨레야 사무국이 주관하는 '신년교례회'가 본당 꾸르실리스따와 신자들을 모십니다. 사랑, 이상, 순종으로 주님께 찬미와 감사를 드리며 울뜨레야 가족의 친교와 사랑을 나눕니다.

찬양·치유 미사

- 일시 : 오늘 5pm(매월 둘째주일)
1.26(주일) 5pm (뉴저지 주최)
- 장소 : 가톨릭 센터 / 준비물 : 없음
- 주최 : 미동북부 성령쇄신 봉사자협의회
뉴저지 지구

[다가오는 행사]

FYNY 스키캠프

- 청년회에서 스키캠프를 마련했습니다.
하루 종일 스키를 타고 즐거운 추억도 남기시기 바랍니다. 서로 친교를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므로 새신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장소 : Belleayre Mountain Ski Center
- 일정 : 1.17(금, 8pm출발)~19(주일, 4pm도착)
- 참가비 : \$250
(숙소/음식+리프트+스키/보드렌탈)
\$ 215(숙소/음식+리프트)
\$ 170(숙소/음식)
- 문의 : 유대건 미카엘 631.655.1733
cloudryu123@gmail.com /
Kakao카톡: cloudryu123

미동북부 청년 레지오마리에 신년회

- 대상 : 행동단원 및 협조단원,
레지오에 관심있는 21세 이상 신자
- 일시 및 장소 : 1.18(토4-8Pm), 가톨릭회관
- 지도신부 : 김영민 미카엘
- 참가비 : \$15 • 문의 : 꾸리아 단장

[모집합니다]

"성경말씀과 나" 원고를 보내주세요.

잔잔한 일상에 가슴을 뛰게 하거나,
우울한 날, 지친 날에 삶을 다독이던,
여러분에게 얼어붙은 바다를 쫓개는 도끼였던
하느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다?
그 흔적을, 울림을 공유하고 싶은 분을
기다립니다.
• 원고의 분량 : letter 사이즈 1장 이내.
(글씨크기 11포인트, 줄 간격 160%)

한국학교, 주일학교 교사

- 한국학교 문의 :
김민정 세라피나(917.887.5040)
- 주일학교 문의 :
김가연 크리스티나(347.882.2244)

청년 성가대 단원 및 반주자

- '처음처럼'에서 단원을 모집합니다.
청년성가대는 매달 4번째 주일 미사를
담당하며 매주 주일 1시 반에 연습합니다.
-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매주 주일 오후 연습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는 음악 전공자를 찾고 있습니다.
- 문의 : 정동혁 미카엘(카톡 : cdh306)

야훼이레 청년 찬양팀 음악피정

- 주님 안에서 '쉼'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마태 11,28)
- 일시 : 2.1(토) 4-7pm
- 장소 : 다미아노 홀
- 신청서 : 페이스북 청년회 페이지 참조
신청서 싸인업해야 자리가 확정됩니다.
- 문의 : 이재인 베로니카
(카톡 : thegreatjaney)

1월 성경 공부

수요일 휴강		
주일 (12. 19)	오후 1:30~2:50	코리안 컨퍼런스룸

성경 통독을 합시다~

본당에서는 '성경통독표'를 통해 성경을 일
년 일독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날마다 15분, 정해진 분량을 읽어보세요.
매일 와 닿은 말씀을 노트에 적으면서
성경말씀을 새기는 감동, 맛보시길
기대합니다.

☆ 2020년도 달력이 필요하신 분은
사무실에서 받아주세요.

지난 주일 우리들의 정성

	\$ 5,355
교무금	성미나 윤항구 민완준 경원유 홍범 진홍섭 한시찬 이희철 장철순 김차순 임영애 이규완 송명자 정희자 황인자 린다김 이기원 박종옥 양복연 노혜영 이웅진 구달희 김창훈 이경자(벨) 김애희 양미숙 박재호 안선정 엄청자 이정자 김지영 이현옥 박기목 오지연 김승한 임노엘 김미화 채봉석 홍봉운 김택영 조소연 박인영 유재상
감사헌금	\$ 0
합 계	\$ 5,355

❖ 꽃봉헌 : \$ 20

설 합동 위령 미사

- 일시 : 1.26(주일) 9시 15분, 윗 성당
- 신청 : 친교실 안내데스크(연령회 담당)
- 마감 : 1.19(주일)
- ☺ 이름을 바르게 써 주시고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설 명절 행사

- 일시 및 장소 : 1.26미사 후~1Pm, 친교실
- 일정 : 1)공동체 어르신들께 세배예절
2)전통놀이(요셉회 주관)
-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바랍니다.
이날의 모든 단체별 모임은 설 행사로
대체됩니다.

2020년도 사목회 임원

사목	이서원		
회장	마리로사		
(남)	박기목	전례	이지연
부회장	알버트	분과장	안나레지나
(여)	유정옥	경로	박정자
부회장	유스티나	분과장	로사
총무	임노엘	교육	박정호
	루카	분과장	로사
재무	김보현	선교	강호영
	엘리사벳	분과장	대건안드레아
남성	김성중	사회복지	송준호
분과장	다두	분과장	바오로
여성	이경자	청년	서인철
분과장	율리안나	분과장	레오비노

[성경구절]

“주님, 저는 주님을 제 지붕 아래로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나올 것입니다.” (마태 8,8)

십 수 년 전 어느 모임에서, 미사 중 어느 부분이 각자에게 가장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가? 에 대해 나눔을 한일이 있었다.

그때에 나는 영성체 전 우리가 바치는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오리이다.” 하는 부분에서 조금 더 집중하고, 정성을 다해 기도드렸음에 대해 나누었던 기억이 있다.

한주일 동안 쓰러지며 죄 짓기를 반복하고도 주일미사에서 그나마 작은 양심이 남아 있어 주님의 자비를 청하고 성체를 치료제 정도로 여기며 영 한 후 내 자신이 깨끗해졌다고 믿는 아전인수 격의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었고, 죄가 클수록 더욱 정성 들여 “한 말씀만 하소서”를 부르짖곤 하였다. 그렇게 하면 일곱 번씩 일흔 번 이라도 용서해주는 자비하신 주님께서는 모든 죄를 용서 해 주시며 빵의 모습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정화시켜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으로 단정 지으며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지에는 관심도 없이 나에게 맞추어진 편리한 방식으로 거룩한 미사에 참여하며, 그 뜻도 내방식대로 이해하며 하느님은 자비하시니 어떤 죄도 용서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위안을 얻으며 신앙생활을 이어 갔다. 그 당시엔 그것이 성경말씀이었던지도 알지 못했다.

그 후, 성경을 읽으며 마주한 마태오 복음 8장 8절의 말씀은 ... 자신이 아닌, 중풍에 걸린 자신의 종마저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병 고침을 간절히 청하고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에, 한 점 의심도 없는 주님께 대한 신뢰로 가득한 백인대장의 말에 예수님께서서는 감탄하시며 “나는 이스라엘의 그 누구에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하시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고, 이천년이 지난 오늘날 까지도 미사 때마다 거룩한 성체를 모시기 전 우리 모두가 백인대장의 믿음을 본받기로 다짐하며 고백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백인대장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네가 믿는 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 시간에 종이 나왔다.” (마태 8,13)

한 말씀만 해달라고 청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귀 기울이기보다는 청했으니 들어주시겠지(들어주실 거야), 하는 일방 통행식 신앙생활에서 이 천 년 전 백인대장이 보여준, 비천한 종까지도 사랑하는 이웃사랑과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 예수님께 대한 지극한 경외심과 함께 예수님의 권능에 대한 굳센 믿음으로 잘 준비하여 이미 깨끗해진 내 안에 주님을 모셔야 한다는 깨달음을 준 귀한 말씀이었다.

본당 게시판

[축하합니다]

♡2019년 12월 25일에 김화자(소화테레사) 어르신이 백두 번째 생신을 맞으셨습니다. 공동체에 오래오래 계셔주세요^^

♡성경통독하신 분을 한해도 성경통독의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경재순(가말라)

[환영합니다]

☆전입하신 분 우리 공동체에서 행복한 신앙여정 걸으세요. 이아림(수산나) : 2020. 1. 7

[기도해주세요!]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마태 25,45)

김화자(소화테레사) 정인해(예로니모) 김순한(루시아) 김옥지(아가다) 전마지(마가렛) 이재오(클레멘트) 이종환(T.아퀴나스) 이정주(소화테레사) 정창동(폴리나) 김용기(요셉) 김동희(헬레나)

[감사합니다]

♡'성경말씀과 나' 원고내신 분 "당신 말씀은 제 발의 등불, 저의 길에 빛입니다." (시편 119,105)

박기목(알버트)